56경기 남은 이승엽, 칠 때마다 역사가 된다

마지막 후반기…무엇이 더 남았나

홈런·타점·득점·최다루타 신기록 행진
4000루타·1500타점 대기록도 가시권
최다볼넷 요원…사이클링 히트 아쉬움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다. 모든 구기 종목이 기록을 중요시하지만 야구만큼 기록 자체가 조명을 받는 종목은 많지 않다. 팬들은 선수의 타율, 타점, 홈런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자신만의 평가 기준을 세운다.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만큼 야구에서 기록이 가지는 가치는 크다.

'국민타자' 이승엽(41·삼성)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름을 알만한 대스타다. 그는 20년이 넘는 프로생활 속에서 '홈런'이라는 기록 하나로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렸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거포인 이승엽은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마지막 시즌에도 벌써 16개의 홈런을 때려 세월을 거스르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홈런만이 이승엽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은 아니다. 이승엽은 2004년에 해외무대에 진출해 8년간 국내무대를 떠났는데, 그럼에도 타자기록에서 대부분의 핵심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기록에는 '최초', '첫 번째'라는 수식어가 유독 많다. 2012년 국내로 복귀한 뒤 올해까지 6년간 대부분의 타자 기록을 다시 썼다. KBO 역대 최다홈런(352호·2013년 6월 20일), 최다타점(1390타점·2016년 8월 24일), 최다득점(1300득점·2017년 5월 2일), 최다루타(3880루타·2016년 5월 10일) 등 대부분의 타격 지표 맨 위에는 '이승엽'이 적혀있다. 이외에도 최다안타, 볼넷 등 다른 기록 상위권에도 이름을 올려놨다. 그는 올해도 현역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위 기록들은 연일 새로운 기록으로 다시 경신되고 있다.

올스타 브레이크 종료로 2017 시즌은 이제 하반기를 맞이한다. 삼성은 144경기 중 전반기에만 88경기를 소화했다. 이승엽이 현역으로 뛸 수 있는 경기가 이제 56경기만 남았다는 얘기다. 그가 다른 기록 부문에서도 신기록을 쓸 수 있을지는 팬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당장 가능한 기록은 최다 2루타다. 이승엽은 통산 449개의 2루타를 때려 이 부문 최다기록 보유자인 양준혁(458개)에 9개만을 남겨놓고 있다. 2루타 10개를 추가하면 당장 신기록 경신이 가능하다. 기존에 달성한 신기록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지도 관심사다. 그는 현재 3983루타, 1466타점을 기록해 전인미답의 대기록인 4000루타와 1500타점을 가시권에 놓고 있다. 위 고지를 밟게 되면 당연히 최초 기록 달성자가 된다.

타이틀 획득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승엽은 현재 934볼넷을 기록해 통산 1위인 양준혁(1278개)에 크게 뒤져 있다. 현역생활을 연장하지 않는 한 경신은 불가능하다. 생애 단 한번도 기록하지 못한 사이클링 히트도 달성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불혹이 넘은 이승엽의 나이를 고려할 때 한 경기에서 장타를 연이어 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삼성 이승엽은 홈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최다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후반기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려는 '라이언킹'은 얼마나 더 많은 기록을 쏟아 낼 수 있을까.

KIA, 94승 찍을까? 최정, 56홈런 넘길까?

〈시즌 팀 최다승〉 〈시즌 최다홈런〉

후반기를 더 풍성하게 할 기록들

헥터, 선발 최다연승 신기록 눈앞
이정후, 데뷔 첫 해 최다안타 도전

전체 일정의 59%인 425경기를 소화하고 휴식기에 들어갔던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가 18일부터 본격적인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제 남은 경기 수는 295게임이다.

후반기에도 전반기 못지않은 풍성한 기록 달성이 기대된다. 팀 기록 부문에서는 KIA가 압도적이다. KIA는 전반기 85경기에서 57승을 거둬 후반기 남은 59경기에서 37승을 추가하면 94승으로 작년 두산이 기록한 단일시즌 팀 최다승인 93승을 경신한다. KIA의 팀 타율은 0.310에 달한다. 역대 한 시즌 팀 최고 타율이었던 2015년 삼성의 0.302를 갈아 치울 기세다. KIA는 KBO리그 최초로 통산 2만7000탈삼진에 380탈삼진, 4300도루에 1도루만 남겨두고 있다.

전반기 153홈런으로 팀 홈런 1위에 오른 SK는 한 시즌 팀 최다홈런인 2003년 삼성의 213홈런 돌파에 61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투수 부문에서는 작년시즌 마지막 1승과 올시즌 14연승을 포함해 선발로만 15연승을 거두고 있는 KIA 헥터 노에시를 주목해야 한다. 헥터는 프로야구 원년(1982년) 박철순(당시 OB)이 거둔 투수 최다 연승기록인 22연승에 도전한다. 또 2003년 정민태(당시 현대)가 세운 개막 이후 선발 최다연승인 14연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후반기 첫 선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할 경우 이 부문 신기록을 작성한다.

전반기를 31홈런으로 마친 SK 최정은 2015년 박병호(당시 넥센) 이후 2년 만에 50홈런 돌파를 내다보고 있다. 최정은 전반기 82경기에서 31홈런을 때려내며 경기당 0.38개의 홈런페이스다. 몰아치기가 나온다면 50홈런을 넘어 2003년 삼성 이승엽의 56홈런도 넘볼 수 있다.

올 시즌 103안타로 KBO리그 최다안타 부문 공동 10위에 올라있는 돌풍의 신인 넥센 이정후는 '데뷔 첫 해 최다안타' 기록에 도전한다. 종전 기록은 1994년 LG 서용빈이 기록한 157안타로 이정후는 기록 경신에 55안타를 남겨두고 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외인교체 마감시한 임박 고민 많은 SK·넥센·LG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KBO리그 외국인선수 교체시한은 7월 31일까지다. 물론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8월 이후 영입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을 뛸 수 없다. 후반기 가을야구를 위해 순위싸움을 해야 하는 팀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외국인선수는 후반기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LG도 스캇 코프랜드 대신 데이비드 허프를 영입하면서 후반기 반등에 성공했다. 7월까지 40승51패로 승패차가 '-11'이었지만 8~9월 승수를 쌓으면서 71승2무71패로 승률 5할을 채우면서 4위에 안착했다. 가을야구를 가시권에 두고 있는 팀은 외국인 교체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2강으로 분류되는 선두 KIA와 2위 NC는 고민이 크지 않다. KIA는 투수 헥터 노에시와 타자 로저 버나디나가 더할 나위 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팻 딘이 17경기에서 5승5패, 방어율 4.88로 '옥에 티'지만 굳이 교체카드를 사용해 현재 좋은 팀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필요는 없다. NC 역시 투수 에릭 해커와 제프 맨쉽, 타자 재비어 스크럭스 모두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맨쉽은 5월 10일 마산 넥센전을 끝으로 부상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지만 7월 12일 광주 KIA전(4.2이닝 2실·1자책점)에서 복귀했고, 스크럭스도 부상을 털고 후반기 다시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상위권과 달리 3위부터 7위까지 포진된 중위권 팀들은 고민이 크다. 후반기 살얼음 승부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위 SK는 '계륵'이었던 스캇 다이아몬드가 자리를 잡으면서 한시름 덜었지만, 타자 제이미 로맥이 부진을 거듭하다가 2군에 내려갔다. 대니 워스 대신 데려온 선수마저 이렇다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4위 넥센도 타자 대니 돈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 한 장 남은 외인교체카드를 써야할지 장고에 돌입했고, 6위 LG 역시 부상으로 2군에 내려간 루이스 히메네스의 복귀와 교체카드 2개의 선택지를 들고 기로에 빠졌다.

그나마 5위 두산과 7위 롯데는 사정이 나쁘지 않다. 투수 더스틴 니퍼트와 타자 닉 에반스가 건재한 두산은 마지막 퍼즐이었던 마이클 보우덴까지 오랜 공백 끝에 무사히 복귀했다. 롯데도 후반기를 앞두고 닉 애디튼을 조쉬 린드블럼으로 빠르게 교체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LG 영건' 임찬규·김대현 허프 공백 위기를 기회로

임찬규 김대현

후반기에 돌입하는 LG의 가장 큰 변수는 데이비드 허프(33)의 부상이다. 그는 9일 잠실 한화전 2사 3루서 폭투된 공을 다시 잡고 포수에게 글러브 토스를 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다쳤다. 즉시 교체된 뒤 다음날 병원 검진 결과 좌측 햄스트링 손상으로 4주 진단을 받았다. 검진 결과는 4주 진단이지만 복귀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순위싸움에 박차를 가해야 할 LG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암초를 만났다.

허프의 공백을 메워줘야 할 투수들은 영건들이다. 헨리 소사, 류제국, 차우찬까지 3선발이 건재하지만 4, 5선발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주면 순위반등이 한결 수월해진다. 다행히 팀에는 임찬규(25), 김대현(20) 등 젊은 선발투수들이 있다.

임찬규는 올 시즌 LG의 가장 큰 히트상품이다. 풀타임 선발이 처음이지만 전반기 15경기에서 4승5패, 방어율 3.44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개막부터 5월까지 8경기에 등판해 4승2패, 방어율 1.36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개인적으로는 승운이 없어 패수가 승수보다 많지만, 팀은 그가 선발 등판한 15번 중 8승을 올릴 정도로 승률이 좋다. 6월부터 슬럼프에 빠졌지만 그가 시즌 초반처럼 선발로서 역할을 해준다면 팀 마운드 높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임찬규 뿐 만 아니다. 5선발 후보인 김대현도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올해 불펜과 선발, 1군과 2군을 오갔지만 7월 13일 문학 SK전에 선발 등판해 5.1이닝 3안타 4삼진 무실점하며 후반기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김대현 외에도 이준형(24), 여건욱(31) 등 선발 후보들이 2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홍재현 기자

NC 이호준

은퇴는 이승엽처럼? 이호준도 있다

덕아웃 분위기 메이커로 후배들 큰 힘
"은퇴시즌 창단 첫 우승 멤버" 큰 꿈도

15일 화려하게 마무리 된 2017 KBO 올스타전의 주인공은 삼성 이승엽(41)이었다. 스스로 은퇴를 예고한 시즌에 팬들의 선택으로 베스트12에 뽑힌 이승엽의 마지막 올스타전은 감동적인 무대였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지만 김재현(2009년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2010년 시즌 후 은퇴선언), 이승엽에 이어 KBO 역사상 세 번째로 은퇴를 사전 예고한 선수도 열심히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다. 바로 KBO에서만 24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NC 이호준(41)이다.

이승엽과는 정반대로 올스타베스타12, 감독추천 선수에도 뽑히지 못했고 팀에서도 주전이 아니다. 그러나 이호준은 자신의 프로경력 햇수보다 나이차가 많은 어린 조카뻘 선수들과 함께 땀 흘리며 전혀 다른 의미의 뜻 깊은 은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호준의 뒤를 이어 NC의 지명타자를 맡고 있는 모창민은 "이호준 선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덕아웃 분위기부터 다르다. 기술적인 조언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잠재적인 포지션 경쟁 상대가 '1군 엔트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흔치 않은 바람이다.

이호준은 올 시즌 팀 세대교체 바람 속에 잦은 부상까지 겹쳐 1군 엔트리에 빠져 있는 날이 많지만 여전히 덕아웃의 코미디언, 클럽하우스의 따뜻한 리더로 역할이 크다.

이호준은 "전성기 때 아무리 야구를 잘 해도 이승엽에게 뒤져 골든 글러브를 한번도 못 받았다. 나이를 먹은 후에도 이승엽이 일본에서 돌아와 기회가 없었다"며 웃곤 한다. 그래도 올 시즌을 앞두고 스스로 은퇴시즌을 선언한 이호준에게 분명한 목표이자 큰 꿈이 있다. 2013년 NC 1군 첫 주장을 맡자마자 "팀의 첫 번째 우승 멤버가 되고 싶다"고 했던 바람이다. 영원한 1등 이승엽도 은퇴시즌 팀의 하위권 성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호준은 손수 성장을 도운 후배들과 선두싸움을 함께 하고 우승에 도전하는 큰 호사를 누리고 있다. 야구계에 회자되는 말이 있다. '인생은 이호준처럼.'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